

# 10월의 기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1.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3.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는 말씀처럼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4.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6. 한일 관계의 갈등이 주님의 뜻 가운데 원만하게 해결되고 두 나라가 협력하여 함께 성장발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아멘 -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김정환,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예수님의 용서

신학자 루이스 스미디스(Lewis Smedes)는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심지어 가해자가 뉘우치지 않고 용서를 구하더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용서는 무엇보다도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생각에 늘 그가 떠나지 않고 괴심한 생각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미움의 감옥 속에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게 되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멈춰있는 삶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용서 밖에 없습니다. 스미디스 박사는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한 문을 통과하게 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며 주님께 나와서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시다. 주님의 피는 영원히 흐르는 피로써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용서할 뿐 아니라, 용서 받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어서 먹으라고 주시고, 피를 흘려서 마시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얽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ept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대만 축복성회

## 9월 4~5일 대만 신띠엔 싱타오교회에서 개최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대만 축복성회가 9월 4~5일 뉴타이베이시에 위치한 신띠엔 싱타오교회에서 개최되었다. 대만의 전 교회가 연합해 40일 금식기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열린 조용기 목사의 성회는 대만 기독교 부흥에 새로운 기폭제가 됐다. 신띠엔 싱타오교회가 주최하고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이 주관한 성회는 대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중화권 복음화에 대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안겨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했다. 신띠엔 싱타오교회는 조용기 목사의 제안인 장마오송 목사가 세운 교회로 대만의 의도순복음교회라고 불릴 만큼 4차원의 영성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성회 통역은 장마오송 목사의 아들이자 신띠엔 싱타오교회 담임 목사인 장광웨이 목사가 맡았다. 성도들의 뜨거운 환영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조용기 목사는 영어로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성회 첫째 날 조용기 목사는 '성공적인 삶과 실패하는 삶'(갈 3:13~14)에 대해 설교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을 피력했다. 조용기

목사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꿈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선포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중복음을 주셨다"며 "오중복음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매일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성회 둘째 날에는 '꿈꾸고 믿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라'(창 13:14~18)는 주제로 설교했다. 조용기 목사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과 꿈, 믿음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4차원의 영성과 바라봄의 법칙을 선포했다. 조용기 목사는 "아브라함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를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먼저 바라보고 선포해야 한다. 또 그것을 갖기 위해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고 말했다.

이들간의 대만 성회는 기적의 현장이었다. 수많은 병 고침의 역사와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졌다. 5일 조용기 목사의 설교 후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이 단상에 올라가 자신이 체험한 간증을 고백했다. 켈중웨이 성도는 "옴치럼 피부병이 심하고 온 몸이 몹시 간지러웠는데 성회 첫날 목사님 말씀 도중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고 집에 가서 보니 부스럼이 모두 사라지고 피부가 깨끗해졌다"며 기뻐했다. 쯔웨이 성도는 "3~4년 전부터 허리가 아파 병원에 다녀도 소용이 없었는데 기도회 때 성령을 체험했고 허리가 깨끗이 고침 받았다"고 고백했다.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조용기 목사의 말씀 도중 성령의 사랑을 느끼고 몸이 뜨거워졌음을 고백했다.

장마오송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에게 4차원의 영성을 가르쳐 주셔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셨다. 이번 성회에 조목사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셔서 많이 치유되고 중양이 사라지는 등 많은 사람이 병을 치유 받았다"며 "성회를 통해 대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항상 긍정적이고 열정과 믿음이 충만한 말씀을 주신 조용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 사랑이란 마음의 상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사용합니다. 이웃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동업자 간에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크기는 나라 사랑, 자연 사랑, 동식물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에는 걸사랑과 속사랑이 있습니다. 걸 사랑은 걸 사람의 사랑으로서 속이는 사랑입니다. 배후에 사투한 목적을 이루려는 속임수를 지닌 형식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속사랑은 속사람의 사랑입니다. 묵묵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진실하고 변함이 없으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속사랑에는 4차원의 영성이 있습니다.

### 1. 걸사람의 사랑과 속사람의 사랑

걸 사람의 사랑이란,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서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흉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의 풍선을 띄우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다가도 조금만 고난이나 불이익이 다가오면 팽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 희생이 따릅니다.

인간들 중에 제일 참되고 진실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14 후회 때 있었던 일인데 이것은 그 후에 없을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이 인천상륙작전으로 승리를 거두는 데는 싶었는데 갑자기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UN군이 압록강에서 후퇴하여 현재의 휴전선으로 후퇴할 때, 미군 부대가 시골 마을의 작은 다리위를 건너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어린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쟁에는 항상 죽고 상하는 자들이 있고 부모 잃은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군인들은 “부모 잃은 아이가 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눈 속에 아이의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얼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피난을 가다가 깊은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추위와 싸우다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에게 입히고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언 땅을 파서 그 어머니를 묻고 갓난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정성껏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아들조차도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를 멸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 2.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한 젊은 주부로부터 항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난산으로 많은 고통 끝에 첫 딸을 낳았는데 아기의 손가락 두 개가 두 마디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내 딸에게 이렇게 가혹한 운명을 내리시다니 하나님도 너무 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아무 리 원망해 봤자 직성이 풀리지 않으니 그가 다 음 공격의 화살의 방향을 내게 돌리고 원망이 가득한 편지를 조용기 목사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자매님은 대학생인데 그와 비슷한 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 자매님은 방학 동안 친구들과 여행을 갔는데 이주시게로 장난을 하다가 그만 자기 눈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지만 의사가 처치를 잘 못하는 바람에 한쪽 눈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매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내 눈을 고쳐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며 저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욥 5:7)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 3. 고난을 이기는 사랑

그러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4차원을 활용하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의 생명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음부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라고 약속하셨으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 14:16)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 6:31-32)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생의 행들을 내가 잡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 ‘아시아 리더스 서밋 2019’ 일본 도쿄에서 개최 돼

## ‘아시아인을 통한 아시아 복음화!’ (Asia by Asians!)



‘아시아 리더스 서밋 2019’(이하 ALS, Asia Leaders Summit)가 9월 17~18일 일본 도쿄 신주쿠 문화회관 및 카이카이 콘퍼런스홀에서 ALS 회장 이영훈 목사와 기독교 리더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ALS는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로 이루어진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이영훈 목사의 주도로 2013년 시작됐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태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3개 나라에서 60여 명의 목회자와 크리스천 리더들이 참석,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연합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영훈 목사는 9월 17일 열린 개회식에서 “인류의 위대한 역사는 창의적 리더들로부터 시작됐다. 아시아의 복음화, 나아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자”며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이번 ALS를 주관한 순복음동경교회 담임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2017년 삿포로에 교회개척과 함께 신학교를 세웠다. 2023년부터 매년 지성전을 10개씩 세워 신학교 졸업생들을 파송해 10년 후에는 10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ALS를 통해 일본에 성령운동이 일어나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며 일본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또한,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ALS를 개최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교회가 협력해 일본 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전진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ALS 참석자들을 비롯해 일본 현지 목회자들과 한국인 선교사 및 일본 복음화를 열망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함께했다.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돼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동시통역 되었다.

이영훈 목사는 총평을 통해 “이번 ALS를 통해 일본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장비결을 묻는다. 교회 성장 비결은 오직 기도 뿐”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6만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일본도 부흥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본에 큰 부흥을 허락하신다”고 역설했다.

ALS는 2020년 대회에서는 다음 세대 리더들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아시아 선교의 중추적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단체로 발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대회는 YFGN(Yoido Full Gospel Network)이 주최하고 순복음동경교회가 주관했으며, 한국에서는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박성민(한국대학생선교회) 김성석(광림교회) 김하나(명성교회)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권일두(국제사역국장) 목사 임주원(선교위원장) 정바울 장로가 참석했다.

